

양천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상반기 30억 원 융자...연 0.8% 초저금리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 3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규모는 총 30억 원으로, 제조업은 최대 3억 원, 도·소매업과 기타 업종은 최대 8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특히 대출 금리를 연 0.8%로 동결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2월 2일) 기준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경과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단, 무점포 소매업, 담배 도·소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금융업 등 일부 업종과 공고일 기준 기존 수해업체(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1년 미경과)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이달 13일 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 △매출액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양

천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업체는 3월 말부터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융자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천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업체는 3월 말부터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융자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초 스마트시니어 교육센터, 어르신 디지털 체험 교육 강화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시니어 AI 교육 공간인 '서초 스마트시니어 교육센터'(사평대로 273)에서 다양한 신기술 기반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해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정보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체험형 디지털 교육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초 스마트시니어 교육센터'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이 최신 디지털 기술을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니어 전용 특화 공간이다. 2025년 기준 총 280개 강좌(2,812시간)에 4,668명이 참여하는 등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올해 체험 중심의 디지털 교육 강화를 위해 센터 내 시설과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했다. 먼저 '어르신 체력 강화 XR 스포츠실'을 새롭게 조성해 날씨와 계절에 제약 없이 사계절 내내 실내에서 안전하게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커뮤니티룸을 리모델링해 마련된 XR 스포츠실에서는 골프, 볼링, 양궁 등 실제 경기와 유사한 환경의 XR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어 어르신들이

운동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 참여를 돕는다.

아울러 센터에서는 3D 센서로 신체 활영해 체형과 신체 상태를 정밀 측정하고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AI 운동돌봄 플랫폼'과 'XR 스포츠'를 연계한 정기 강좌를 신규 개설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무리 없이 지속적인 운동 습관을 형성하고 정기적인 신체활동과 건강관리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운동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 참여를 돕는다.

아울러 센터에서는 3D 센서로 신체 활영해 체형과 신체 상태를 정밀 측정하고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AI 운동돌봄 플랫폼'과 'XR 스포츠'를 연계한 정기 강좌를 신규 개설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무리 없이 지속적인 운동 습관을 형성하고 정기적인 신체활동과 건강관리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 삼표레미콘 부지 착공 눈앞 현장점검

서울시, 5일(목) 성수 삼표레미콘 특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본격 사업에 착수

'09년 전국 최초 시작 '사전협상제도' 적용 첫 대상지, 균형발전·공공이익 다각도 효과



성수동 옛 삼표레미콘 부지가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치고 '글로벌 미래업 무지구'로 발돋움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업 실행에 들어간다. 이 부지는 특히 서울시와의 사전협상으로 확보된 공공기여 6천여 원을 활용, 성수 일대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기반 스타트업의 스케일업도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는 성동구 성수동1가 683번지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2월 5일(목) 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화) 오전,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 서울의 경쟁력을 견인할 랜드마크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번 결정고시는 지난 2022년 레미콘 공장 철거 이후 시와 사업자가 사전

협상을 통해 마련해 온 개발계획이 작년 1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음을 의미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최고 79층 규모 업무주거사업 기능이 융합된 복합단지로 개발된다. 성수 지역 업무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 시설 의무 비율이 35% 이상 적용되고 직주근접을 실현해 줄 주거시설(40% 이하), 상업·문화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삼표레미콘 부지는 1977년부터 약 49년간 레미콘공장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교통 불편 등 민원과 사업추진 중 부침이 지속되던 곳이다. 서울시가 레미콘공장 철거 후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해 서울 대표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었다.

사전협상으로 확보된 공공기여분 약 6,054억은 지역 교통 문제 해결, 기반

시설 확충을 비롯해 스타트업의 성장(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연면적 53,000㎡ 규모 '유니콘 창업허브'를 조성해 투입, 성수동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공공시설 설치비용 약 2,300여 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부간선도로 용비교 램프 신설 ▲성수대교 복단 램프 신설 ▲응봉교 보행교 신설 등 지역 여건 개선에 폭넓게 활용할 예정이다.

또 서울숲과 부지를 연결하는 '임채보행데크'가 설치되고 지상부에는 시민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규모 녹지와 광장이 들어서 서울숲의 녹지축이 부지까지 확장되게끔 조성된다.

레미콘공장으로 이용됐던 부지는 연내 토지 정화 작업을 우선 진행하고 신속한 건축심의와 인허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연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소음, 분진, 교통 체증 등 주민 고통과 번번이 무산된 사업 계획으로 장기간 표류해 온 삼표레미콘 부지가 사전협상제도라는 돌파구를 만나 '윈-윈-윈(Win-Win-Win)', 기업·행정·시민 모두가 이기는 해답을 찾고 '글로벌 미래업무지구'로 거듭나게 됐다"며 "성수동뿐만 아니라 사전협상제도를 도시 곳곳의 낡은 거점을 미래 성장의 무대로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활용, 서울 전역의 도시 혁신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장성 기자

구로구, 의료·청소부터 이웃 봉사까지 '든든한 설 준비'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설 연휴를 앞두고 의료 공백과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연휴 중 진료 가능한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하고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쓰레기 배출일 조정과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봉사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먼저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응급진료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해 운영하고, 설 당일인 2월 17일에는 보건소 비상진료반이 내과 진료를 실시한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과 구로성심병원은

권역·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서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청소 분야에서도 연휴 기간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구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청소상황실을 운영하고, 설 연휴 기간 중 쓰레기 배출일을 조정해 무단 배출과 미수거를 예방한다.

'월·수·금' 배출지역은 2월 16일, '일·화·목' 지역은 2월 17일 배출이 금지되며, 이후에는 지정일 저녁 8시부터 정상 배출할 수 있다. 배출일 변경 사항은 각 동 주민센터, 공동주택, 지식산업센터 등을 통해 사전 안내했고, 동별 3개 소씩 총 48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해 집

중 홍보했다.

식품안전과 시설 위생 확보를 위한 점검도 병행했다. 구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수용 식품제조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축산물취급업소 등 9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위생관리 상태, 보관기준,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명절 성수 식품 16건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병·의원 및 약국 명단은 2월 13일 최종 확정되며, 응급의료포털(E-Gen)과 구로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청년 부채 부담 덜어줄 정책 3종 세트 6일부터 신청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이자·신용회복 지원 6일(금)부터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서 신청

서울시는 사회 진출 전부터 부채를 안고 시작하거나 신용유의로자로 등록돼 구직 등 사회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청년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계속해 나간다.

서울시는 청년 부채 경감 정책 3종 세트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2월 6일(금)부터,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상시 신청받는다.

학자금 대출 이자가 부담되는 서울 시민이라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선정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남아 있는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올해는 약 3만 명(상·하반기 각 15,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와 소득 1~7분위에 대해서는 발생 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 8분위는 서울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액

을 결정한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장기 연체해 신용유의로자로 등록된 청년은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용유의정보 등록 해제를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과 분할 상환 약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납부해야 하는 초입금(채무 금액의 5%)을 시가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가 된 서울시민 1,256명 중 77.8%가 청년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으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서울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신용도가 낮아 생활비, 의료비 등으로 쓸 소액 대출조차 어려운 청년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개인 회생, 채무조정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저신용 청년의 고금리 대출 이자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신한은행·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한은행은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에 필요한 사업비를 신용회복위원회에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대상자를 선발해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지원하는 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서울시가 부담한다. 이 사업을 통해 2025년 총 2,629명이 지원을 받았다.

19~39세 서울 거주 청년 중 채무조정·개인 회생 성실 상환자 및 관계자인 경우, 연 3% 금리로 최대 1천5백만 원까지 생활·의료비, 고금리 대출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신청 자격 등을 상담한 후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하면 된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은 "올해도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상환과 연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이지 않도록 꼼꼼히 청년들을 챙기겠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부채 부담으로 일상과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장성 기자

손목닥터-스마트기기 시너지 효과 뚜렷...서울시, 할인 구매 지원

8,000보 이상 지속적 걷기 달성하면 체중 감소 등 건강개선 효과 뚜렷하게 나타나

서울시의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인 '손목닥터9988'이 정밀한 데이터 관리와 포인트 제도 개편을 통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건강 개선을 이끌어내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더 많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스마트기기 할인구매 지원에 나서 참여 기반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기기를 연계한 이용자의 행동 변화는 더욱 뚜렷했다. 손목닥터 9988과 스마트기기를 함께 사용하는 이용자는 월만 사용하는 경우보다 매일 평균 약 400보를 더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8,000보(70세 이상은 5,000보) 미션 성

공률 또한 8.5%p에서 최대 10%p까지 더 높았다.

서울시는 포인트 인센티브가 걷기를 시작하게 하는 동기라면, 스마트기기는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걷기 활동을 일상할 수 있도록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건강관리 성과를 더 많은 시민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스마트기기 구매 부담을 낮추는 파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4월(수) 오전 10시부터 손목닥터9988 이용자를 대상으로 '갤럭시 핏3' 할인 구매 지원 사전 신청을 개시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총 2만 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소비자는 89,000원의 제품을 특별 할인가인 5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4월 사전 신청을 완료한 시민 대상으로, 실제 결제는 2월 9일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손목닥터9988은 행동 변화를 이끄는 서울형 건강관리 통합 플랫폼으로서 시민의 삶 속에 확실히 자리 잡았다"며,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응원하기 위해 준비한 이번 갤럭시 핏3 프로모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장성 기자

상상 그 이상 안성!

미래기술의 혁신과 문화의 다양성이 어우러지는 **안성맞춤도시 안성**

설레이는 변화가 기대되는 **이제, 안성입니다.**

City of Masters **안성**